

# 구한말 부산지역 조선어, 일본어 교육의 전개\*

## -이문화 ‘장(場)’으로서의 교육 공간-

제점숙\*\*  
momoko1003@hotmail.com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구한말 부산지역의 교육사업  |
| 2. 선행연구             | 4.1 일본인 대상의 조선어 교육 |
| 3. 이문화의 공간으로서의 ‘왜관’ | 4.2 조선인 대상의 일본어 교육 |
|                     | 5. 마치며             |

주요어: 부산 개항(The Open Port of Busan), 이문화교류(contact cultures), 일어학교(Japanese school), 조선어학교(Korean school), 일본 불교(Japanese Buddhism)

## 1. 들어가며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제시대 관련 연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산부협의회, 부산상업회의소, 각종 사회단체, 재부산일인자본가, 신사, 관광, 도시하층민 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가 축적된 결과, 개항과 동시에 부산거류를 시작한 일본인들의 당시 시대상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지역 연구에 대한 중요성은 먼저 부산이라는 공간이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과 함께 일본인의 중요한 거점도시였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근대적인 요소가 사회전반에 축적되어 자의든 타의든 근대적 교육 시스템이 부산에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즉, 부산의 근대는 한국 근대의 출발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이 글에서는 구한말 부산지역의 일본인과 조선인<sup>1)</sup>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생과 협력이

\* 이 논문은 동서대학교 2011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Frontier Project”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동서대학교 외국어계열 일본어학과 조교수

1) 이글에서는 구한말의 한국인, 한국어를 전체적으로 조선인, 조선어로 통일시킨다. 단 사료에서의 인용은 한국, 한국인의 경우 그대로 사용한다.

공존하는 ‘이문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것이다.<sup>2)</sup> 부산은 최초로 일본인 거주를 위한 특별구역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근대 교육과 교육 사업이 실시된 지역으로 일본인, 조선인과의 다양한 섞임 문화의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시기 교육 사업은 부산으로 건너 온 가족 동반의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자녀의 교육문제가 급부상되어 실시되었는데, 처음에는 일본 불교의 종교시설 제반을 활용한 교육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자녀의 교육문제를 해소해나갔다. 하지만, 1905년 전후로 일본거류민단체의 독자적인 교육 사업으로 전환시켜 운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부산 교육시설은 일제시대를 거쳐 현재 그 맥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sup>3)</sup> 교육 분야 이외에도 개항기 부산에서는 다양한 섞임의 문화를 확인 할 수 있지만, 일본인, 조선인의 교육 사업을 통해서 본 한일 민족 간의 관계 형성 과정은 섞임 문화의 또 다른 공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먼저 관련 선행연구와 ‘왜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구한말 일본인과 조선인의 외국어로서 조선어 교육, 일본어 교육의 전개과정과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구한말 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 교육 정책’ 또는 ‘하나의 저항코드로서의 민족교육’에 중점을 둔 지배와 피지배, 수탈과 피수탈의 관계의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 틀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구한말 교육공간을 통해서 바라 본 일본인과 조선인과의 이문화 교류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지금까지 부산 개항기 관련 연구는 식민지가 본격화되기 전의 단계로 인식되어 식민지주의를 근간으로 정치적 경제적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개항 자체가 국내외 자본의 이동과 확장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이런 논리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 최초의 근대적 교육의 기초를 이룬 부산지역 교육사업 관련 연구 역시 상기의 관점으로

2) 물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는데 갈등과 반복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갈등관계를 노출하면 또다시 민족주의나 제국주의와 같은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논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많이 언급하고 있어 이 글에서는 가능한 피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의 만남을 교류의 문맥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3) 구한말-일제시대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부산 교육시설로는 광일초등학교, 동일중앙초등학교, 토성초등학교, 영선초등학교, 부산여자고등학교, 부경고등학교, 부산공업고등학교, 경남여자중학교, 봉래초등학교 등 다수가 존재한다.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한국의 근대적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교육 정책을 쟁점으로 한 연구,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과 이에 대한 한국 민족의 저항에 관한 연구, 기독교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과 민족 교육에 관한 연구 등이다. 일제의 식민지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교육, 또는 그에 대항하는 저항 코드로서의 민족교육이라는 이분법적인 분석이 주된 논의의 틀이었다.<sup>4)</sup>

나아가 근대 부산 지역의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초등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강기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근대 부산 지역의 초등교육은 첫째, 부산지역민의 노력과 협력으로 전개되었다. 둘째, 근대 부산의 초등교육의 전개과정에서는 부산 지역민들의 개화와 민족의식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셋째, 근대 부산 지역의 초등교육은 식민지 교육의 특성을 갖고 전개된 측면도 있지만, 부산 지역민의 의식 성장과 인재양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개화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시작된 근대 부산 지역의 초등교육은 일제에 의해 식민지 교육의 수단으로 왜곡되어 활용되기도 했으나, 부산지역민의 노력과 협조로 민족의 얼을 되살리는 민족교육, 애국교육의 성격 또한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sup>5)</sup>

한편, 이송희는 일제하 부산 지역 일본인의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그 결과 첫째, 일제의 부산 지역 교육정책은 개항 당시 한국인과 일본인의 교육을 별개로 전개하였으나, 1938년 교육령 반포 이후 명칭을 소학교로 통일한 뒤부터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산지역 초등학교의 교과서를 보면 처음에는 총독부가 발간하거나 인기한 것이었는데 차츰 문부성의 교과서로 교체되었다. 셋째, 부산지역의 일본인 교육과 한국인 교육을 차별하는 교육정책을 실시하였다. 넷째, 이렇게 분리된 교육의 장에서 일본어와 일본 역사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다섯째, 일본인 초등학교는 교육연한이 6년이고 한국인은 4년이었다. 한국인 학교가 6년제로 바뀐 뒤에도 4년제가 많았다. 여섯째, 기본적으로 일본인 교육과 한국인 교육은 재원을 달리하여 운영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일체화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교육과 한국인 교육은 분리된 채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저자의 분석은 결론적으로 양국 국민의 관계를 지배자와 피지배라고 하는 기존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sup>6)</sup>

하지만 이 글에서는 좀 더 확장된 시각에서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진 교육 사업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시 개항장이라는 특수한 공간 안에서 한국인과

4) 김지연(2004) 「부산 지역 근대 학교 연구」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참조. 이 논문에는 민족주의사관, 식민주의사관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5) 강기수(2008) 「근대 부산 초등교육의 전개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석당논집』제41집, pp.231-261

6) 이송희(2008) 「일제하 부산지역 일본인의 초등교육」, 홍순권 『부산의 도시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pp.191-229

일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교육 사업을 지배와 피지배, 수탈과 저항의 수직적인 관계로만 이해될 수 없다는 문제 제기 안에서, 좀 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질적인 문화와 사상들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사업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부산 개항장의 특징은 조선 후기 왜관에서 형성된 양국 사람들의 관계가 개항 이후에도 지속하고 있었으며 양쪽 관계의 연속성은 다음 장에서 논하겠지만, 개항이라는 목적에 부응하는 상품거래와 문화관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특수한 공간으로서의 부산 개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교육 사업을 이 글에서는 고찰하고자 한다.

### 3. 이문화의 공간으로서의 ‘왜관’

17~19세기에 왜관은 동래에만 존재하였다. 왜관은 일본과 조선, 일본과 동래, 대마도와 동래의 관계를 규명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1679년에는 일본인이 출입할 수 있었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출입국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당시 왜관 주위에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조선인 군인들에 의해 통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된 공간 역시 사람들이 사는 일상과 연결된 공간이었기에, 통제 속에서도 적지 않은 교류들이 일탈을 감행하여 일어나고 있었다. 양홍숙은 「‘범죄’를 통해 본 조선후기 왜관 주변 지역민의 일상과 일탈」이라는 글에서 왜관이라는 공간에서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활동에 대해 ‘일탈의 경험과 인식이 지역에서 반복되고 묵인, 공유되면서 일탈은 더 이상 일탈이 아닌 것이 되었다. 일탈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지역민의 역동성에 기인하였다. 반복의 지속성과 시간성으로 일상에서 생겨난 관계는 습관화되고 공유되면서 로컬리티로 내재화 되어갔다’<sup>7)</sup>고 논하고 있다. 즉, 왜관에서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활동에 대해 약조(約條)와 규칙이라는 틀새에서 오히려 일상 속 일탈을 경험하면서 많은 교류가 진행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왜관은 방어와 소통이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지역이면서 각각의 경계를 유지해 나가는 긴장의 공간이었던 것이다.<sup>8)</sup>

이러한 측면에서 김동철은 왜관을 조선과 일본, 조선인과 일본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계를 형성해 간 공간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왜관을 중심으로

7) 양홍숙(2011) 「‘범죄’를 통해 본 조선후기 왜관 주변 지역민의 일상과 일탈」『한국민족문화』제44집, pp.233-234

8) 양홍숙, 앞의 논문, p.258

한 경제적 관계에 대해 왜관 안의 개시(開市)와 왜관 밖의 조시(朝市)를 언급한다. 개시는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무역상인이 매달 3일, 8일, 13일, 23일, 28일, 즉 한 달에 6번 실시하는 무역으로, 특정한 장소에서 행해진 국가공인의 시장인 셈이다. 반면 조시는 왜관의 정문 앞 노천에서 매일 열리는 아침시장이다. 조시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왜관 주변 마을에 사는 일반 조선인이었다. 기본적으로 개시와 조시는 시간과 공간, 주체와 상품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상이한 성격을 지닌 경제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활동 주체는 왜관 안팎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상기의 연구들은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이루어진 양국의 상인들의 경제활동이 이미 왜관이라는 경계를 의식하지 않은 채 활발한 경제적 교류를 해왔음을 규명하였던 것이다.<sup>9)</sup>

차철욱은 부산에서 활동하던 대표적 일본인 갑부 하자마(迫間房太郎)라는 인물을 사례로 하여, 그의 조선인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는 수탈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부산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선인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당시 조선인과의 섞인 공간에서 서로 공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다.<sup>10)</sup> 즉, 부산 개항장 공간에서 이루어진 상거래 특징을 통해 경제적, 문화적 섞임 공간으로서의 왜관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부산 왜관을 둘러싼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류 형태가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음을 제시한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통제와 소통이 공존하는 가운데 양국 상인 또는 일반인들이 교류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극복해야 할 과제는 언어장벽의 문제였다. 이 글은 열림과 닫힘이 동시에 공존, 나아가 섞임의 공간으로 변모해가는 부산이라는 지역 속에서 실시한 조선어, 일본어 교육사업을 통해 그 속에 표출되는 이문화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 4. 구한말 부산지역의 교육 사업

### 4.1 일본인 대상의 조선어 교육

부산에서 일본인 대상의 교육 사업의 발자취는 개항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메노모리(雨森

9) 김동철(2012) 「17~19세기 부산 왜관의 開市와 朝市」 『한일관계사연구』 제41집, pp.223-224

10) 차철욱·양홍숙(2012) 「개항기 부산항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 형성」 『한국학 연구』 제26집, pp.32-36

芳洲)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727년 그에 의해 설치된 통역양성기관인 ‘한어사(韓語司)’가 그 모습을 드러낸 이래, 1872년 일본의 조선침략과 함께 쓰시마(對馬島) 이즈하라(嚴原)에 ‘한어학소(韓語學所)’가 설치되었고, 1873년 한어학소 폐지 이후에는 부산의 초량으로 옮겨 ‘초량어학소’를 설치하여 조선어통역양성사업을 이어갔다.

초량어학소는 약 7년간 운영 되었는데 조선어교수는 주로 쓰시마 출신의 부산영사관원들이었고 조선인 교원으로 김수희(金守喜)가 있었다. 교재는 교린수지(交隣須知)와 린어대방(隣語大方)을 골자로 상담(常談:人事編 賣買編 古語編)으로 분류된 18장, 린어대방 속편도 동일)과 구화(構話: 한일관리들 간에 교환하는 각종 연습용 인사를 편집한 것으로 21장)를 첨가하여 대화와 역술 등을 생도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조선의 최충전, 임경업전, 속향전, 춘향전 등의 고소설을 이용하여 조선의 풍습을 학습함과 동시에 번역의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통역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초량어학소는 1880년 일본 도쿄(東京)의 외국어학교에 조선어학과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sup>11)</sup> 이 무렵 거류지 내 초량어학소의 기능은 일본 정부의 조선 진출에 필요한 통역사를 양성하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1876년 강화도 조약 이전의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은 통역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자 가족을 이끌고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인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자치단체가 필요했다. 당시 외무성에는 관리관이 주재하고 있었는데, 그의 감독 하에 회의소를 설치하고 업무를 담당할 사람(用番)을 두어 일반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것이 부산 거류민 자치단체의 출발이다. 회의소에서 담당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 중의 하나가 자녀 교육기관의 설치였다. 무엇보다 일본인들의 현지 적응을 위한 조선어 학습을 위해 거류민과 거류민 총대는 기존 조선어학소를 확대 할 것을 당시 포교활동을 하고 있었던 일본 불교 동본원사(東本願寺)에 의뢰하였다. 거류민의 대부분이 종사했던 업종인 무역업·중매상(仲買商)·소간물상(小間物商·방물상) 등의 직업은 조선인과의 교섭이 필수였기에 일본 거류민들에게 조선어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 시급했던 것이었다. 동본원사는 이를 받아 들여 1877년 11월 27일 부산에 포교소를 설치, 포교소 내에 ‘한어학사(韓語學舍)’를 설치하였다. 조선어 교육은 대마도 출신 우라세(浦瀬祐)<sup>12)</sup>가 담당하

11) 松原孝俊(1997) 「嚴原語學所と釜山草梁語學所の沿革をめぐって—明治初期の朝鮮語教育を中心に—」 『言語文化論究』第8号, pp.47-59. 또한 이에 한국 연구로는 정근식(2007) 「구한말 일본인의 조선어교육과 통역경찰의 형성」 『한국문학연구』제32집, pp.7-55가 있다.

12) 동본원사는 대마도 출신의 우라세 유타를 별원의 조선어 교사 및 통역으로 고용하여 조선어 교육 및 포교에 활용하였다. 그에 대한 기록을 『조선국포교일지(朝鮮國布教日誌)』에서 살펴보면, ‘한어교사 우라세유 관청통역관이 와서 조선의 사정을 이야기함(후에 본원사 전임통역으로 고용, 월급40엔), 우라세 씨 『교시장(敎示章)』을 한어로 번역하고자 함, 우라세씨 어학교사로 고용, 당일부터 출장소에 출근함(20

였다. 이때 한어학사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했다. 첫째는 일본인의 조선어 교육과 함께 조선에 유학 온 젊은 유학생 대상의 조선어 교육과정, 두 번째는 현지승(조선 승려)을 대상으로 한 종교성이 짙은 일본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조선어 교육과정에서 배출된 유학생들은 포교활동 뿐만 아니라 외교 통역관 및 사업 통역관으로 활동했다. 당시 상황을 동본원사 교단 측 자료를 인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인 승려 개종을 통해 조선민중의 입교(入敎)를 도모하는 한편 재조선 일본인에 대한 조선민중 악감정을 해소하는 융화책에 전력을 경주(傾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종교지(眞宗敎旨)를 설법하고 좌담에서는 물질적으로 교유(交遊)하고 성의를 피력(披歷)했다. 이로 인해 조선인의 호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였고, 나중에는 조선어로 설법, 또는 진종교지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참배자에게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했다<sup>13)</sup>

위의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한어학사의 기능은 일본어, 조선어와 같은 어학강습의 교육적 기능만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 동본원사에서 수행 했던 활동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일본 거류민의 안정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둘째,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중간적 역할, 셋째, 동본원사의 종교적 목표인 교세확산을 위한 포교사로서의 역할이다. 특히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진종교지’와 같은 종교적 기능(보편적 성격으로서의 기능)으로서 그 해결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조선인 대상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본산유학생을 수용함과 동시에 조선 동포로 하여금 일본어를 배우려는 자도 수용하여 메이지 22년(1889)까지 이를 존속시켰다. 한어학사는 물론 어학 이외에 불교학도 가르쳤다. 가토(加藤法城)는 불교 교사로 한어학사에 교편을 잡은 한 사람이었다’고 전하고 있다.<sup>14)</sup> 이처럼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을 동시에 실시했던 동본원사의 ‘한어학사’는 개항과 더불어 조선인과 일본인이 일상에서의 이문화 접근이 가능한 ‘장(場)’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것이다.

한편, 일본 거류민 자제들을 위한 본격적인 학교 창립의 움직임은 회의소(1926년 현재 부청 아래 공립유치원 부근)의 방 하나를 교실로 쓰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회의소 사무원이었던 우에노(上野敬介)를 주임으로 13명의 아이들에게 독서, 산술, 습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때

일부러 전임교사로서 고용)등이 기술되어 있다. 『조선국포교일지』, 1877년 11월 17일, 1878년 6월 24일, 8월 28일, 김윤철(2012) 「개항기 해항도시 부산의 동본원사별원과 일본인지역사회」 『해양도시문화교섭학』 제6호, p.13

13) 大谷派本願寺朝鮮開敎監督部編(1927) 『朝鮮開敎五十年誌』, pp.21-32

14) 大谷派本願寺朝鮮開敎監督部編, 앞의 책, p.152

가 1877년 5월 1일로 이것이 부산에서의 학교 교육의 첫 시작임과 동시에 해외에서의 일본 교육사업의 시발점이 되었다. 물론 이때의 교육은 이른바 데라코야(寺子屋)<sup>15)</sup>식 교육의 범위를 넘지 않은 것이었다.<sup>16)</sup>

1880년 일본 국내 교육사업 동향은 교육령의 개정과 함께 소학교의 설치구역 및 교칙의 설정, 지방 관청에 권한을 위임하는 등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렇게 일본 국내 전국적인 교육사업의 확산은 그 영향이 부산에도 미쳐 당시의 신임 초대 영사인 곤도(近藤真鋤)는 보통 교육의 완비를 위해 영사관사를 무상 불하 받고 기부금 586원을 모금하여 건물을 수리 개축하고 교사(校舍)도 증당하였다. 이때 일본 국내의 전 나가사키중학교 교원을 교장으로 임명하고, 교원을 더 초빙하여 ‘직원직무장정(職員職務章程)’을 만들어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갔다. 이때 교명을 수제학교(修齊學校)라 하였다. 1890년 7월 당시 아동은 90명이었다. 수제학교에서도 일본인의 요구에 의해 한어과를 두고 일본 거류민 자제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때의 모습을 ‘대략 순서 있는 교육의 단서가 되어 일본국내 학교와 비교하여 하등손색이 없게 되었다’<sup>17)</sup> 라고 할 정도로 일본 국내와 유사한 교육 시스템이 부산에도 구축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3명의 교원 가운데 2명을 어학교수와 어학교교로 두고 조선어 교육을 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학교수와 어학교교는 각각의 감사(監事)나 사계(司計-회계업무)를 겸하고 있어 조선어 교육을 소홀히 하여 이를 개정하기 위한 요구가 거류민 부모로부터 속출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1881년 ‘학교사건’으로 발전하게 된다. 거류민 자제의 부모 대표자들은 ‘홍익한 어학교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첫째 초량관어학소의 어학생 중에 조선에서의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했을 시 통역경험이 있고 현재 부산에 체재하고 있는 스미나가(住永友輔)를 고용교수와 동등하게 위치 할 것, 두 번째, 학교 규정을 변경하여 소학과 어학은 혼동되지 않도록 시간을 나누어 분리교육을 실시 할 것’ 등의 내용을 진정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3월 소학교교육과 조선어교육을 분리하고 조선어 교수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sup>18)</sup>

이처럼 당시 거류민에게 있어 조선어에 대한 학습 욕구는 그들의 삶과도 직결된 것으로 일본인이 조선에서 조선인들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현지어의 습득이 시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언어를 통한 조선인과의 섞임은 이렇게 외국어 학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조선어 학습에 대한 요구의 절실함은 뒤에 조선어를 배운 사람들에게 의해 조선어 학습서 간행

15) 에도시대 서민의 자제를 대상으로 한 독서(讀書) 및 산술(算術) 등을 가르친 교육시설을 말한다.

16) 釜山府釜山教育會(1927) 『釜山教育五十年史』, p.9

17) 같은 책, pp.10-11

18) 南相璽(1991) 「日本人の韓国語學習—朝鮮植民地化過程に焦点をあてて—」 『教育学研究』第58卷 第2号, pp.125-126



까지 이어졌다. 예를 들어 우라세교정증보(浦瀬裕校訂增補)의 『교린수지』, 『린어대방』은 1881년 간행되었고, 우라세교정증보의 『재간(再刊)교린수지』와 호사코교정(宝迫繁勝校訂) 『교린수지』는 1883년 부산에서 간행되었다. 이들 책에는 조선의 문화와 생활을 알 수 있도록 전통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살렸으며, 한글 읽기에 일본어 가나는 붙이지 않았다. 대신 어휘 부분에 한자와 한글을 병행하였다.<sup>19)</sup>

한편, 소학교를 졸업하는 생도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중등정도의 보습교육기관의 필요가 생겨났다. 1883년 동본원사에 운번으로 취임한 오타(太田祐慶)는 여기에 뜻하는 바가 있어 일본인 자제를 대상으로 부산 별원 내에 여학과, 영어과, 조선어과 등을 내용으로 보습교육을 개시했다. 여학과에는 재봉 및 보통여자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20여명의 생도가 있어 영어과는 우에무라(上村某)가 담당하고 조선어과는 본원사 유학생인 스즈키(鈴木順見)가 이를 담당했다. 일시적으로 성황을 이루었으나 동본원사 본산의 사정에 의해 1885년에 폐지되었는데, 조선어과만이 스즈키가 조선을 떠나는 1888년까지 지속되었다.<sup>20)</sup> 이 보습교육은 중등레벨의 거류민 보습교육 기관으로는 최초이자 고등여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조선어과가 가장 오래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아 일본인들의 조선어에 대한 학습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일전쟁의 승패가 갈린 뒤인 1895년 거류민은 약 1,000여 명으로 격증하여 아동 총 수가 450명이나 되었다. 이로 인해 1888년 거류민회 결의로 기존의 수제학교와 동본원사의 보습교육기관을 합쳐 서정(西町)의 옛 교지에 교사를 신축, 같은 해 12월에 ‘부산공립학교’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부산공립학교를 부산공립소학교<sup>21)</sup>로 개명하여 영어, 한자어를 수의(隨意) 과목으로 설치하여 수업을 실시했다. 위치는 초량관 시설의 동대청 위치로 추정되며 이때 조선인 아동의 입학허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학교에 다닌 조선인 학생들은 초량방면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 주재 청나라 행정기관원들이 조선인 학생이 일본 거류지로 일본어를 배우러 가는 것을 방해했다는 기록<sup>22)</sup>이 있을 정도로 청일전쟁 후의 청일 양국 간 팽팽한 긴장 분위기 속에서도 교육 공간을 통한 섞임은 지속되고 있었다. 반면 청일전쟁 이후, 고조된 분위기 속에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는 조선인을 교육 사업을 통해 끌어들이려는 일본인과의 또 다른 긴장 관계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어가 숙달된 조선인의 본과생 편입제도

19) 예를 들면 ‘兩班량반’, ‘道袍도포’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南相璽, 위의 논문, p.126  
 20) 大谷派本願寺朝鮮開教監督部編, 앞의 책, p.150  
 21) 당시 조선에 있는 일본인 소학교는 부산(1877), 원산(1882), 인천(1885), 경성(1889), 모두 4학교였다.  
 22) 이때 협박, 납치까지 이루어 졌다는 기록과 청나라 영사관이 초량 조선인 마을과 일본인 거류지의 중간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추측이 가능하다. 「居留地の育英事業に就いて」『釜山府原稿』 제6권, p.379, 차철욱, 앞의 논문 p.30에서 재인용.

는 조선인에 대한 ‘일본화’를 피하고자 하는 측면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을 소학 교육의 보급 발달로 여긴 일본정부는 일본 국내의 교육 자급에 많은 돈을 지원했다.<sup>23)</sup> 이러한 영향은 부산에도 미치어 증가하는 아동 수를 충당하기 위한 교사 신축계획을 추진해 나간다. 이리하여 1900년 6월 교지 6,281㎡(1,900 평)를 대청정(大廳町) 제1소학교 현 위치에 선정, 신축하여 일본 개정 소학교령과 동 시행규칙<sup>24)</sup>을 기반으로 1901년 4월 신학기부터 수업을 실시하였다. 1905년 경부선의 개통으로 러일 전쟁의 교통 요로가 된 부산에서는 연평균 2000~5000명의 거류민이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기존의 부산공립소학교는 초량 분교가 되었다. 초량분교에서는 1905년 4월 4일 초량, 고관, 부산진의 아동을 수용하는 시업식을 거행하게 된다. 이 때 아동 수는 45명이 한 학급으로 편제되었으나 같은 해 말에는 86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리하여 부산공립소학교는 1905년을 기하여 그 막을 내리고 1906년 1월 대청정의 교사 건축이 준공 되면서 ‘부산공립심상소학교’로 창립,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심상소학교 아동과 함께 신설 고등여학교 생도를 수용하면서 근대적 교육 시스템의 본격적 궤도에 오른다.

반면, 이 시기의 일본 거류민의 조선어 교육 현황에 대해 『교육시론(教育時論)』을 참고하자면 ‘일본자제를 위해서 각 거류지에 학교가 있으며 조선어는 정과 또는 수의과로 가르치는 곳도 있으며’라고 소개하고 있다. 즉, 1900년 당시 조선어 학습은 정규과목 또는 임시과목으로 채택되어 학교 필요에 의해 조선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03년 7월 재한연합소학교장회에서는 12개의 사항을 협의하였는데 그 중 세 번째 항목에 ‘고등소학교의 한어과 필수 개설 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1905년 6월 소학교장회에서는 ‘일본소학교에 한어를 개설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가 하는 설과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설 두 가지로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조선어과 설치 찬성론과 반대론에 둘러싸인 찬부양론이 대립하고 있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피지배와 지배라는 이항대립구도가 보이긴 하나 살아가기 위한 생계유지의 언어소통 차원에서 여전히 조선어 교육은 필요했던 것이다.<sup>25)</sup>

23) 일본 국내에서는 교육자급에 지나(중국의 옛 명칭)로부터 보상금 1천만 원을 분할하여 교육기금으로 사용했다. 釜山府釜山教育會, 앞의 책, p.15

24) 고등 수업 연한을 3년으로 개정, 남자에게는 3년 여자에게는 2년의 보습과를 설치하였다.

25) 참고로 당시 일본인의 조선어 실력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다음을 참고하고자 한다. 일본참모본부에서는 1901년부터 1903년까지 2년간 16세 이상 남자에 관한 ‘재한본방인한국어정통지(在韓本邦人韓國語精通者)’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당시 한국의 일본거류지인 부산·목포·한성(서울)·평양 등의 영사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 조사는 회화능력을 ‘1종, 공문서 및 고시(告示)등을 쓰고 자유롭게 회화가 가능한 자’, ‘2종, 보통 회화에 지장이 없는 자’, ‘3종, 조금 회화가 가능한 자’로 분류하여 실시했다. 그 결과 73명, 325명, 1069명, 합계 1,467명에 불과했다. 1903년 거류민 남자 총수는 16,888명으로 그 중 4분의 1이 어린아이들로,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거류민 남자 약 12,000명 중 1~3종 해당자 비율은 각 0.6%, 2.7%, 8.9%, 합계 12.2%에 지나지 않아 87.8% 대부분이 회화능력이 없는 자였다. 따라서 한국어

이어 이 시기의 일본인 학교의 조선어과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심상소학교의 조선어교육은 전신인 수제학교에서 이미 실시되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부산심상고등소학교는 이미 1903년 당시 심상고등과는 ‘따로 보습과를 설치하여 중학 정도의 학과를 교수하게 하고 남성은 3년생, 특히 여성은 2년생으로 한어과를 설치한다’<sup>26)</sup>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여학생 대상으로 먼저 조선어 교육을 실시하고 그 후, 1904년부터 고등과 남자부에도 한어과가 추가 개설되었다. 즉, ‘당 학교는 작년도부터 학과 과목에 변경을 추가해 고등과 남자부에는 1학년은 수공, 영어, 한어 3과목을 추가한다’<sup>27)</sup>라고 전하고 있다.

1894년 창립된 부산공립야학교는 공립소학교와 같은 곳에 위치하여 기본학과로는 영어, 한어, 상업 3과로 하고 학생지원에 따라 전과 수업을 듣거나 1,2과를 수업 듣는 것을 허락하여 각 학과를 3개년 6학기로 하고 매일 저녁 3시간 실시하였다. 이후 사정으로 상업과를 폐지하고 부산공립야학교로 개명, 이어 영어과도 폐지하고 한어과만을 남겨두게 되었다.<sup>28)</sup> 이때 교장은 하마다(濱田弘道)로 한어과 교원은 고쿠부(国分哲), 가와카미(川上立一郎), 오이시(大石明), 박교학(朴敎學), 심능익(沈能益), 변시중(邊時中)과 같이 조선인 교수도 다수 참여하였다.<sup>29)</sup>

부산상업학교는 1907년 3월 제1회 졸업생 5명이 나왔으며 창립 이래 수업 연한, 입학자격, 학과 과정 수업시간 수, 휴업일 등 학칙의 전부를 일본의 법규에 준거하여 일본 국내와 같은 교육을 시행하였다. 1906년 창립된 부산상업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외국어 교과에 한어를 충당하고 있지만 부산 상업학교도 이를 필수로 하여 교수한다’<sup>30)</sup>처럼 조선어 과목이 필수였다. 부산고등여학교의 최초 정원은 150명, 수업연한 3년이었으나 1907년에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였다. 부산고등여학교는 조선어과를 두고 있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상세한 상황은 알 수 없다.<sup>31)</sup>

한편, 부산실업학교는 1907년 5월 1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개교 후 교장을 제1소학교로

능력이 없는 자는 전체의 90%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인의 낮은 조선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의 각 지역에서의 일본인 교사 파견을 실시하기도 했다. 『參謀本部ノ依頼ニヨリ在韓本邦人韓國語精通者氏名年齢住所等取調一件』1901년 2월, 1903년 8월 外務省資料, 南相璽 앞의 책, p.128에서 재인용.

26) 『教育詩論』第669号, 1903년11월15일, 時事彙報「釜山公立小學校」, 稻葉繼雄(1999)

『旧韓國の教育と日本人』九州大学出版会, p.36

27) 위의 기사, 제755호, 1906년 4월 5일 内外雜纂「韓國に於ける我国民教育(6) : 釜山公立小學校(下)」, 稻葉繼雄, 위의 책, p.36

28) 『教育報知』第498号, 1895년12월3일 新報「釜山の状況(続稿)」, 稻葉繼雄, 위의 책, pp.37-38

29) 차철욱, 앞의 논문, p.28

30) 『教育學術界』제17권 제2호 1908년5월10일 外報「在韓子弟教育論評」, 稻葉繼雄, p.37

31) 幣原担『朝鮮教育論』六盟館, 1919년, p.307, 稻葉繼雄, p.37

정하고 교사는 각 학교에서 책임자를 위촉하여 조선어, 국어, 영어, 한문, 상업, 부기, 산술, 습자, 작문을 가르쳤다. 생도의 실력에 따라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의 3학기로 나누고 1기를 6개월로 하여 1년 반에 전 과목을 졸업하는 규칙이었다. 비용은 교육회, 거류민단의 보조금과 특지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다. 생도의 다수는 상점 점원, 고용원, 급사 등으로 혹은 시간과 돈이 없어 상급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이 대부분이었다. 적어도 600명은 졸업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sup>32)</sup>

이렇게 실시된 일본인 대상의 조선어 교육은 1909년 2월에 공포된 「통감부소학교규칙」에서 ‘고등소학교에 있어서는 수의과목으로 한어를 개설한다’는 규정으로 반드시 개설을 안 해도 되는 과목으로 서서히 그 형태를 잡아가게 된다.<sup>33)</sup> 한국 병합이후에는 말할 나위 없이 일본인의 조선어 교육의 중요성은 저하하지만, 그 이전의 일본인 학교에서는 조선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현저했음을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4.2 조선인 대상의 일본어 교육

1876년 강화도조약부터 1910년 한국병합까지의 이른바 구한말 개화기 교육은 기존 연구 성과에 의하여 크게 세 갈래로 구분하여 설명되고 있다. 첫째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민족의 자주 자강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민간인에 의한 사학의 설립이었고, 둘째는 기독교가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근대적 학교의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이며, 셋째는 구한국 정부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한 것이었다.<sup>34)</sup> 구한말 조선의 교육현황에 대해서 『부산교육50년사』사료에서는 병합이전 조선 교육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구시대 교육은 이른바 국민 교육이라는 계통이나 조직적인 시설은 유감스럽게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 국가적 시설로는 성균관과 동서남중의 사학이 있고, 또 각 군에는 향교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어느 것이나 유학을 중심으로 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에 등용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들 교육기관은 실재는 과거 응시를 위한 준비장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그 이외에 각지에 서방(書房) 혹은 서당이라 불리는 동몽(童蒙)에게 한문 읽기를 교수하는 과정의 초등 교육기관이 상당히 보급되어 오늘에도 의연히 구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심히 불완전하고 국민 교육기관으로 볼 가치가 있지 않다……이 시대의 부산의 교육도 역시 하등 불만한 것이

32) 釜山府釜山教育會, pp.31-33

33) 稻葉繼雄, 앞의 책, pp.35-36

34) 李元浩(1983) 『開化期教育政策史』서울문음사, pp.49-55

없고 다만 각 등에 산재한 서당에서 단지한문과 서예를 가르치는데 불과하였다.<sup>35)</sup>

물론, 이 문헌이 조선총독부와 직결된 부산부(釜山府)발행이라 이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와 같은 구한말 교육 상황을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이 시기야 말로 한국 정부에서도 근대적 교육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라 할 수 있겠다. 이 글의 논점이 구한말 조선의 교육의 장에서의 일본인과 조선인의 이문화 공간을 검토하는 것이기에 이에 초점을 두고 이하 논고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음의 사료는 조선인 대상의 일본어 교육과 관련 된 동본원사의 자료이다.

오쿠무라(奥村円心) 1879년 1월 한어학사를 창립하고 몇 명의 본산 유학생을 수용함과 동시에 조선동포에 대해 일본어를 배우려 하는 자를 수용하여 1889년까지 이를 지속시켰다……1894년 전몰(청일전쟁-역사 주) 결과 스게하라(菅原)윤번은 일어를 배우려 하는 자가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본산에 교섭하여 초량에 일어학교를 설립하여 초량학원이라 일컫고 개교식을 올렸다. 이 보다 이미 초량에 박기종(朴琪宗)과 아라나미(荒浪平治郎) 두 사람이 개성학교라 하는 일어학교를 경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량학원에 입학 하는 자 백여 명을 넘어 해마다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초량학원이 폐쇄되어 후에 생도를 개성학교에 위탁하여……<sup>36)</sup>

위 사료를 참고하자면 부산에서의 조선인 대상의 일본어 교육은, 동본원사의 한어학사를 시작으로 한국인 유지자 중심의 개성학교, 동본원사의 초량학원을 들 수 있다. 한어학사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으나,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종교적 측면과 관련지어 일본어 교육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고지마(小島勝)는 일본불교, 특히 동본원사의 중국에서의 일본어 교육의 내용에 대해 3가지 측면으로 고찰하고 있다. 첫째, 현지인 가운데 정도진종 본원사와 승려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그 속에서 일본어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 둘째, 비정형적으로 현지인에게 일상회화로써 일본어를 가르치고 생활상의 편익을 제공했다는 점, 셋째, 현지인을 위한 유치원을 설립하고 일본어를 가르쳤다는 점, 넷째, 현지인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일본어를 가르쳤다는 점이다.<sup>37)</sup> 이상과 같은 내용을 조선포교 활동에도 적용해본다면 동본원사의 부산의 활동은 단순히 조선인의 일본어 교육 사업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측면, 즉 교세확산을 염두에 둔 조선인과의 섞임을 위한 일본어 교육 사업이라는 것이다. 즉 동본원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어 교육을 통해 조선인 및 현지승려 포섭을

35) 釜山府釜山教育會, 앞의 책, pp.61-62

36) 大谷派本願寺朝鮮開教監督部編, 앞의 책, p.152

37) 小島勝・木場明志(1992) 『アジアの開教と教育』法蔵館, p.17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일본어 교육을 계획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구한말 부산 근대학교의 첫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개성학교에 대한 그 설립 경위와 그 내용을 살펴보자. 설립자는 전술의 박기종과 아라나미이다. 먼저 박기종이라는 인물에 대해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박기종은 부산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서구 문명에 대해서도 선각자로서의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미 부산 개항 이전부터 통사들과의 교우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일본 상인과 접촉할 기회도 많아 개화 선각자로서의 신념을 굳혀 갔고 1876년부터는 관직으로 나아가 외부 참사관으로 조선 주재 일본인들과 교류가 잦았고 무임소 변리공사도 지냈다. 후일 산업 진흥과 자원 개발에 뜻을 두고 장남은 일본의 광산 학교에, 차남과 친족 자제들은 철도 학교에 유학시킨 것으로 미루어 실용주의적 개화관의 소지자이며 실천자였음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sup>38)</sup> 무엇보다 박기종은 초량 왜관에 드나들면서 왜상(倭商)과 접촉, 일본말과 상술을 배웠다 한다. 이 때 양국 상인들 중간에서 거간(居間)일을 맡아보았다. 왜관을 드나들면서 배운 일본어로 서민 출신인데도 관계에 진출할 기회를 얻어 구한말에는 통역관으로 출세하기도 하였다. 또한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후 1876년 5월 제1차로 파견된 대일 수신사 김기수 일행에 박기종은 4명의 통사 중 한 사람으로 수행하여 일본의 새 문물을 시찰하였다. 그 후 두 차례의 일본 방문에서 얻은 개화 문명에 대한 집념은 후일 그로 하여금 철도 부설에 힘을 쏟게 한 원동력이 되어 부산 지역 경제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sup>39)</sup>

이처럼 박기종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의 경계구역인 왜관을 넘나들며 섞임의 공간을 통한 이문화 교류를 직접 경험한 자로,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개성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 학교 설립에 있어 교장 아라나미의 전적인 협력은 개성학교가 일본인과의 섞임 속에서 이루어진 교육 공간이었음을 여실히 말해준다. 아라나미는 당시 개성학교의 설립 경위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본교 설립은 이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부산의 유지 박기종씨가 미리부터 학교설립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미 들어 왔으나 이를 착수하게 된 것은 1895년 5월이었다. 이에 앞서 본인은 뜻한 바 있어 한창노 유람의 뜻을 품고 가던 중 부산에 체재하는 사이에 하루는 영가대의 간친회에 초대되어 그 곳에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후 다시 진감리, 이침사, 박경무관으로부터 서신 연락이 있어 수차 내왕하면서 친밀하게 되었다. 당시 가토 부산 영사가 중간에 들어 상호 협의하는데 편익을 도모했다. 박씨는 동분서주하여 유지 4사람을 얻어 각기 300원씩 합계금 1500원을 출자하여 교사를 건축하기로 하고 본인이 교무 및 교수상의 제반 업무를

38) 김지연, 앞의 논문, p.17

39) 위와 같음

위임하기로 되어 박씨와 합의하여 착수에 이르렀다.<sup>40)</sup>

이때의 유지는 이내옥, 배문화, 변한경, 이명서로 추정되며 박기종을 포함한 5명이 협의하여 개성학교 설립을 결의하였다. 이들 지원금으로 학교교사는 다음 해인 1896년 영주정(瀛州町)에 부지 3,300㎡(1,000평)를 마련하여 건물 6동을 신축하기에 이른다. 이듬해 1897년부터는 해마다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1,800원, 한국정부로부터 1,200원을 지원 받게 되었다.

아라나미 초대교장을 비롯하여 이승규가 한문 및 한국어를 담당하였고 일본인 1명이 일본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일본인 체육 담당 교사가 축탁 교사로 추가되기도 하였다.<sup>41)</sup> 당시 사용된 교과서는 일본의 문부성 인가의 것과 한국 학부에서 편찬한 것 외에 한문이 있었고 수업은 대개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초등과 중등과 1,2년을 수업한 자 중 도쿄에 유학한 학생도 10여 명 있었으며 그 중에는 학교에서 학자금의 대여 또는 보조를 받고 있는 자도 있었다. 당시 유학하고 귀국한 자와 졸업생으로 관청과 회사에 취직하거나 혹은 실업에 종사하는 자가 무려 70여명이었다. 또한 수학여행은 주로 일본 규슈지방을 다녀왔다.<sup>42)</sup> 이러한 사실 즉 일본어로의 수업 진행, 교장, 교사를 포함한 운영진 상당수가 일본인이라는 점, 일본 문부성의 인가를 받은 교과서의 사용, 일본 유학 또는 규슈지역으로의 수학여행 등 개성학교 운영에는 일본정부 및 일본인이 상당 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본원사 사료에서 개성학교를 일어학교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일어학교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아라나미가 이 학교를 일어학교로 운영하게 된 것은 당시의 선진국으로서의 일본의 문명전달이라는 사명감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지만,<sup>43)</sup> 아라나미는 스스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 언문을 배우면 서로의 말을 배우는데 편리한 길이 열림을 늘 생각하며 이와 관련된 교재인 『日清韓千字文』을 펴내기도 하였다.

한편, 재정의 어려움으로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당시 조선인의 근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높아져만 갔다. 이로 인해 취학자수도 차츰 늘어나 하나의 학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개성학교를 기점으로 각지에서 지교 및 보조교를 세워 운영하였다. 1899년 이후부터 1903년에 이르는 동안 개성학교의 지교 및 보조교의

40) 부산직할시편찬위원회(1991) 『부산시사』제4권, p.25

41) 김지연, 앞의 논문, p.18

42) 釜山府釜山教育會, 앞의 책, p.68

43) 아라나미는 개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일본은 마치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 서양 각국의 학술을 시험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일본은 동양에서 세계 각국의 학술을 종합해 절충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의 큰 연못에 사방에서 주입된 물이 막 흘러넘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일본 문명관이 내면에 자리잡고 있다. 荒浪平治郎(1990) 『日清韓千字文』哲学書院, p.22

상황은 대략 아래와 같다.<sup>44)</sup>

<표 1> 개성학교 지교 및 보조교 현황

소재교명	재적생	출석생	학과정도	교원
공립부산 개성학교	64	52	초등과전기1,2,3 (일본심상학교준함) 후기1,2,3(고등소학교준함)	일본어3 한무과 한인1 수업생3 (보조교사)
구관지교	64	48	초등전기1,2외 한문전수생	한국인1 일본어보조교사2
부산진지교	95	64		한국인1 일어보조교사2
공립동래 일어학교	40	27	초등과전기1,2,3	일본인1
마산포 개진학교	54	42	초등과전기1,2,3 후기2년정도	일본인1 한국인3
밀양개창학교	39	34	초등과전기2,3 초등과후기2,3	한국인1 보조교사1

출처:부산상업고등학교동창회(1995) 『부산100년사』, p.15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개성학교를 포함한 지교 및 보조교에서는 한국인의 교원보다는 일본인 교원이 수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교원 구성은 당시 일본어를 배워 일본의 신문화를 받아들여려는 시대적 조류로 볼 수 있기는 하나, 일제의 타율적인 힘이 조금씩 강화되어 가는 당시의 상황도 배제 할 수 없다.

1907년 조선 정부는 교육정비를 위해 일본의 참여하에 교육에 관한 제 법령<보통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실업학교령>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를 관공립학교로 이관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1907년 개성학교는 도·관립 이관의 통첩을 받게 된다. 개성학교는 이를 반대하고 사립 보조교로 해 줄 것을 청원하자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3월에 교명을 사립부산개성일어학교로 개명하고 종전대로 학교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1908년 3월에 정부로부터 보조금 단절 통첩이 와서 경영 유지 곤란으로 학교를 학부에 헌납하였다. 이때 학부는 교직원과 학생의 대부분을 인수하여 개성학교 자리에 공립부산실업학교와 공립 부산보통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 무렵 부산에서는 또 하나의 일어학교 설립의 움직임이 동본원사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44) 김지연, 앞의 논문, p.20



동본원사의 일어학교가 부산 초량에 정식으로 발족한 것은 1895년 일이다. 그 실태에 대해서는 ‘대곡파본원사 사립부산학원’이라는 제목의 1899년 교단 측의 잡지『종보(宗報)』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 초량학원과 다른 ‘부산학원’ 명칭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1910년 상황을 기록한 ‘스스로 부산학원을 세워 드디어 한국인의 자제를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sup>45)</sup>라는 문장에서 보자면 부산의 진중대곡과 조선인 일어학교는 하나밖에 없기에 초량학원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학년을 예습 제1학년, 예습 제2학년, 초등 제1학년, 초등 제2학년, 초등 제3학년의 5개로 분류하여 수신과, 독서과, 산술과, 지리과, 습자과, 역사과, 체조과, 창가과, 도서과, 외국어학과를 수업과목으로서 개설하고 있다. 그 중에서 수신과, 독서과, 산술과, 습자과, 체조과, 외국어학과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리과에는 ‘한국지리대요’, 역사에는 ‘한국역사대요’가 포함되었고 외국어학과에서는 ‘히라가나’, ‘가타가나’, ‘간단한 한자 혼용문’으로 주된 외국어는 일본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899년 당시 전 생도는 조선인 106명으로 당시의 사료에 그 이름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초량학원이라는 교육시설은 규모나 교과과정을 보더라도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가운데 조선에서 실시되었다. 일본어가 외국어로 자리매김 되고 일본어를 포함한 폭 넓은 범위의 수업과목이 개설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조선인교육에 따른 한국지리·역사 등이 교육된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일어교육이 실시된 학교로서 당시 부산부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동래에 있었던 동래부학교를 들 수 있다. 1898년 동래의 유지 신명록은 동래성 안에 있는 한문소학교의 교실을 빌어 소학교 과정의 학교를 열었는데 이것이 동래부학교다. 소학교 과정인 동래부학교는 초등전기 1~2학년 한문전수반으로 신명록이 교장으로 하여 2명의 한국인이 한문을 가르쳤고, 1명의 일본인이 일본어와 산수를 가르쳤다. 동래부학교는 1898년에 출발하여 1903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재학생은 초기 5~6명에서 뒤에는 연평균 40명가량 되었다. 학생의 연령은 평균 14세 정도였으나 때로는 20세가 넘는 자도 있었다. 1900년에 부사 윤필은 일어부를 병설하여 학교를 확장하였다. 신명록은 유지들의 기부금과 자신의 사재를 들여 학교 유지에 애써 왔으나 한문소학교가 폐지되고 건물이 팔려 헐리게 되자 교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폐교하고 말았다. 이때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은 대부분이 곧이어 설립된 개양학교(開揚學校)에 흡수되었다.<sup>46)</sup>

이상 부산지역 조선인 대상의 일어학교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설립시기를 보자면 청일전쟁 이후의 일어학교의 설립이 두드러진다. 이 시기 일어학교에 대해서 이나비(稲葉繼雄)는 ‘한국병합 이후 일본어가 “국어(일본어)”화 됨에 따라 대부분 자연 소멸되었다는 의미에 있어

45) 「大谷派本願寺私立釜山学院」『宗報』第5号, 1899년 2월 15일자

46) 부산직할시편찬위원회, 앞의 책, pp.31-32

구한말 독특한 학교형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47)</sup> 청일전쟁 직후 일어학교의 설립은 조선인 측에서 본다면 청일전쟁 승리라는 정세가 결정적으로 반영되어 높아져가는 조선인의 일본어 학습열에 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점점 일상생활 속의 일본인과의 섞임 공간이 농후해져 감을 의미한다. 즉, 일본인과의 교류수단으로써 '상업용어', '일상 언어'로써의 일본어 기능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절실했던 것이다.

## 5. 맺음말

이 글은 구한말 부산지역에서 실시된 조선어, 일본어 교육의 전개과정을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이문화 교류의 '장(場)'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이글에서 살펴본 조선인, 일본인 대상의 부산지역 조선어, 일본어 교육 전개과정과 그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에서의 조선어, 일본어 교육의 특색으로서는 첫째, 일본 종교가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조선 전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특색이라 할 수 있다.<sup>48)</sup> 조선의 포교를 위해 부산에 첫 발을 내디딘 동본원사는 일본 불교 전파라는 종교적 실천의 목표 하에 일본 거류민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조선어 학습으로 조선어과는 한국병합 이전까지 반드시 필수 개설과목은 아니더라도 부산 전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이는 강화도 조약 이전의 정치적 필요하의 조선어 학습과 차원을 달리하여, 조선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생활수단으로써 요청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나아가 동본원사는 일본인의 조선어 교육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일본어 학습에도 상당 관여를 하였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불교라는 보편적 진리를 앞세운 종교 활동의 한 과정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현지승려의 양성 및 교단 본부 유학생 파견을 통한 조선어와 일본어 학습, 일반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청일전쟁 이후의 일어학교의 설립 등은 반드시 종교적 측면에만 중점을 두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처럼 동본원사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섞이

47) 稻葉繼雄(1997) 『旧韓末「日語学校」の研究』九州大学出版会, 緒言참조

48) 『부산교육오십년사』에서는 이 시기의 교육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전선 소학교의 경영을 살펴보면 당시 내지인은 적었던 관계로 경리비용과 설비가 부족하여 유지의 곤란, 당사자의 고심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다. 그래서 초창기 소학교의 대부분은 종교가들이 힘써서 창설 혹은 경영했던 것이 주목할 일이다. 즉 원산,목포, 마산은 모두 종교가가 창설하였고 우리 부산과 경성, 인천, 군산과 진남포도 한때 그들의 손에 위탁되어 있었다. 그 후 모두 거류민의 경영으로 이전하여 공립학교가 되었으나 그렇게 되기까지 진중정토종의 포교사의 헌신적 노력과 선각자이 고심과 알선은 대서특필할 아름다운 일이다' 釜山府釜山教育會, 앞의 책, pp.20-21

는 교육 공간을 제공해줌으로써 그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언어 문제의 해결은 물론, 양국 문화 이해를 위한 디딤돌 역할로써 관여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산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교원이든 학생이든 항상 조선인, 일본인이 뒤섞인 공간에서 실시되었다. 초량에 위치한 부산공립소학교는 일본인 자제를 위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아동의 입학도 허가했다. 나이가 일본어가 숙달되면 본과생으로 편입하는 제도까지 두고 있었다. 이는 교육공간에서의 경계가 제도적으로도 허물어졌음을 나타낸다. 또한 일본인 대상의 조선어 교육 담당을 주로 조선인이 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초기 조선어 학습을 담당했던 초량어학소에서는 김수희라는 조선인 교원이 있었다. 김수희는 조선어 학습 교재인 『교린수지』개정작업에도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산공립야학교에서는 박교학, 심능익, 변시중과 같은 조선인 교원이 조선어 수업담당을 했고, 심능익과 변시중의 경우 개성학교 박기종의 철도사업에 있어서도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나비는 구한말 조선어 교육에 있어 일본인에 의한 조선어 교육은 극히 드문 경우였으며, 대부분이 조선인에 의한 교육이었다고 말하고 있다.<sup>49)</sup>

한편, 조선인 대상의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일본인 교원들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동본원사 한어학사는 일본 포교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개성학교 역시 박기종에 의해 설립이 되었지만 교장인 아라나미를 비롯하여 대부분 일본인 교원을 중심으로 운영된 점이 적지 않다. 이전부터 왜관이라는 경계구역을 넘나들며 섞임 공간에서의 활동이 이미 익숙해진 박기종에게 있어서는 일본인과의 섞임을 통한 학교 창립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동본원사의 초량학원 역시 청일전쟁 이후 높아진 조선인의 일본어 학습에 부응하고자 창립된 것으로 중심적 역할은 동본원사의 포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러한 현상들은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가져온 결과라는 점이다. 개항 이전부터 부산에는 일본인 전용 거주지역인 왜관이 설치되어 시간과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곳은 사방으로 담이 싸여 조선인이 갈 수 없는 통제된 구역이었다. 하지만 이속에는 그 경계를 넘어선 적지 않은 이문화 교류가 감행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한일 양국의 정치적 국면과는 별도로 개항 이후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부산거주 일본인, 조선인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들의 삶과도 직결된 양국의 언어문화는 조선, 아니 부산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단신으로 부산에 건너와 새로운 삶을 개척한 일본인들은 후에 가족단위로 건너와 점차 부산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부산거주 조선인은 일본 공간에 뛰어들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형성된 이문화 공간은 다양한

49) 稻葉繼雄(1999), 앞의 책, p.39

섞임 현상으로 나타났다. 일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들로 인해 공생과 협력, 열림과 단합이 공존하는 이문화의 ‘장’이 형성되었고 그 가운데 교류는 진행되었던 것이다.

### 【參考文獻】

- 강기수(2008) 「근대 부산 초등교육의 전개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석당논집』41집, pp.231-261  
김동철(2012) 「17~19세기 부산 왜관의 開市와 朝市」『한일관계사연구』제41집, pp.223-224  
김지연(2004) 「부산 지역 근대 학교 연구」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윤철(2012) 「개항기 해항도시 부산의 동본원사별원과 일본인지역사회」『해양도시문화교섭학』 제6호, p.13  
부산직할시편찬위원회(1991) 『부산시사』제4권, p.25  
이송희(2008) 「일제하 부산지역 일본인의 초등교육」, 홍순권 『부산의 도시형성과 일본인들』선인, pp.191-229  
李元浩(1983) 『開化期教育政策史』서울 문음사, pp.49-55  
정근식(2007) 「구한말 일본인의 조선어교육과 통역경찰의 형성」『한국문학연구』제32집, pp.7-55  
양홍숙(2011) 「‘범죄’를 통해 본 조선후기 왜관 주변 지역민의 일상과 일탈」『한국민족문화』제44집, pp.233-234  
차철욱·양홍숙(2012) 「개항기 부산항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 형성」『한국학 연구』제26집, pp.32-36  
稲葉繼雄(1997) 『旧韓末「日語学校」の研究』九州大学出版会, 緒言  
大谷派本願寺朝鮮開教監督部編(1927) 『朝鮮開教五十年誌』, pp.21-32  
「大谷派本願寺私立釜山学院」『宗報』第5号, 1899년 2월 15일자  
小島勝·木場明志(1992) 『アジアの開教と教育』法藏館, p.17  
幣原担(1919) 『朝鮮教育論』六盟館, p.307  
松原孝俊(1997) 「嚴原語学所と釜山草梁語学所の沿革をめぐって—明治初期の朝鮮語教育を中心に—」言語文化論究, 8号, pp.47-59  
南相璽(1991) 『日本人の韓国語学習—朝鮮植民地化過程に焦点をあてて—』『教育学研究』第58卷 第2号, pp.125-126  
釜山府釜山教育會(1927) 『釜山教育五十年史』, p.9

---

논문투고일 : 2012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1일

---

〈要旨〉

구한말 부산지역 조선어, 일본어 교육의 전개

-이문화 ‘장(場)’으로서의 교육 공간-

일제시대 부산지역 관련 연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가 축적된 결과, 개항과 동시에 체재하기 시작한 일본인과 그 속에서 함께 살아 간 조선인들의 당시 시대상의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부산지역의 일본인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인과 조선인 간에 표출되는 공생과 협력 등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섞임’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부산은 최초로 일본인 거주를 위한 특별구역인 왜관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 조선인과의 다양한 이문화의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장(場)이다. 예를 들어 언어 학습 면에서 일본인이 조선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일본 거류민들이 조선에서 생활하기 위한 삶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조선이라는 이국에서 조선인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조선 문화, 조선인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했음을 말해준다. 결국, 구한말 부산의 각 지역 초등교육시설에서는 조선어 교육 과목이 대부분 개설되었다. 한편 조선인의 일본어 교육도 이에 못지않은 학습열을 보였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의 조선인의 일본어 학습에 대한 고조 현상은 이문화 교류의 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부산 지역의 이러한 외국어 학습 공간은 일본과 한국이라는 이문화의 ‘장’을 형성시키기에 충분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기존의 구한말 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 교육 정책’ 또는 ‘하나의 지향코드으로써 민족교육’에 중점을 둔 지배와 피지배, 수탈과 저항의 관계의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교육공간을 통해서 바라 본 한국인과 조선인과의 이문화 교류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n Investig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Progress  
of Education in Busan during the Period of Korean Empire**

-The Field of Education as a Place of Cultural Exchange-

Researches regarding Busan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are being conducted in a number of different aspects in the recent few years. As a result these researches, the lifestyle of Japanese sojourning in Busan after the opening of ports has been revealed little by little, as well as the zeitgeist of Koreans in the community. This paper strives for an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and the tendency of educational industry in the Busan area of the time, enforced specifically for the Japanese and Koreans. The purpose of this paper through such investigation is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education being the place for unity, where reciprocity, cooperation, discrimination and conflicts manifested by both nationalities exist together. Not only was Busan the first city to create a special district for Japanese habitation, the city holds many other evidences of being a culturally diverse place during the time. For example, the fact that the Japanese learned Korean directly relates to their everyday life in Korea: it shows that Japanese immigrants had to have an understanding on Korean culture, and the people, in order to live in harmony with the Koreans in Busan. Thus, the most of elementary educational systems in Busan created a course on Korean language during the era of Korean Empire, 1897-1910. On the other hand, the learning of Japanese language among Koreans also showed a certain enthusiasm. Especially, the fact that knowing Japanese as a Korean came to have an elated importance after the Sino-Japanese war shows that the knowledge on Japanese language was essential in cultural exchange. The education of Japanese and Korean language in Busa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creating a place of cultural diversity, composed of Korean and Japanese cultures. The existing evaluations on education during the Korean Empire remain focused on ‘Colonial education regarding Korea’ or ‘Nationalism education as a form of rebellion’, unable to break the conventionally set composition of domination and submission, exploitation and victimization. This paper aims at overcoming this limitation by viewing education as an opportunity of cultural unity between the Japanese and the Korean.